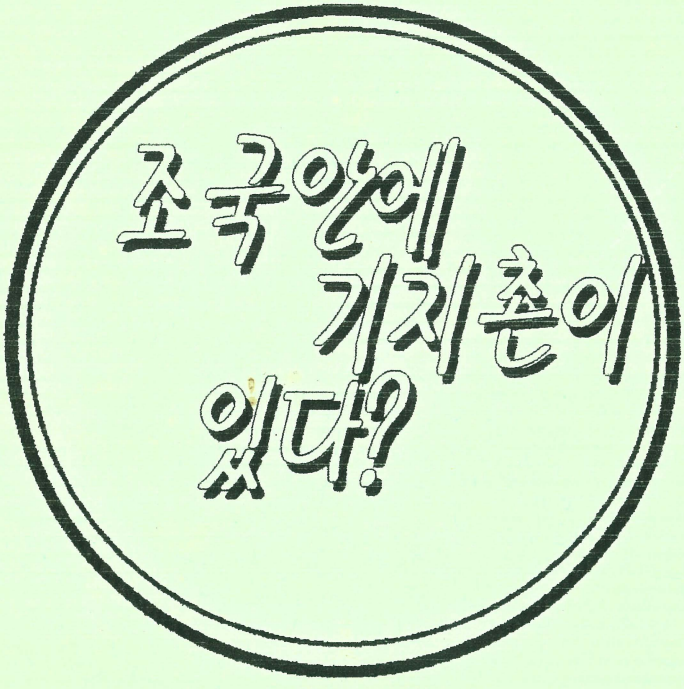
4기 기지촌 활동 자료집



4기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기지촌 활동 추진위원회

4기 기지촌 활동 자료집



4기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기지촌 활동 추진위원회

기지촌의 조국

척박한 나라일수록
몸으로 때울 일이 많으니
半島같은 나무에서 가랑잎떼 같은 여자들
기지촌 마당으로 가랑이 찢긴 채 떨어져 쌓이는 소리 듣는가
분꽃이나 채송화마냥 여위고 조그만
허리로 군화도 채 안벗은 일본군졸들을
하룻에 스무명도 받아야 했다던 정신대
지금은 식민지도 아닌데 전쟁중도 아닌데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며
통일의 역군 양키를 위하는 길이
곧 애국이고 돈도 버는 길이라며
신체발부, 부모님이 주신 몸천을 쓰니 씹기도 쉬운 일이라며
살려고 버둥거리는 꽃잎다리를 이 곳 마당에 뀌꽃이하는
잘먹고 잘입는 살찐 동포야

우리들의 조국을 묻지마세요
분꽃씨처럼 까맣게 오그라든 기지촌 여자들의 국적은 분노와 그리움.
분노를 조국으로 한 이들이 어디 우리뿐이겠어요
반도나무기둥에서 떠지않아 구실좋은 외군, 총칼들 물러지고
우리들 조국이 제꽃 일듯 활활 타오르겠죠.
그 땐 과거 흠 삼지않는 원산땅이나 해남쯤에 가
정갈한 조국 덕보며 살고파요.

내↘리↘비↘처

■ 여는시 '기지촌의 조국' 1

■ 격려사 전여대협의장, 한총련의장 3

■ 인사말 서여대협기추위장 6

■ 계획의 발자취 7

95년 계획의 의의와 목표 8

지역별 지구 일정및 프로그램 12

■ 주한 미군아! 이제 이땅을 떠나라 17

1 주한미군범죄 실태와 그 원인 18

2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8

3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36

■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

기지촌 여성 백순실 할머니의 황혼 39

혼혈아의 삶 어느 편지 44

■ 계획 대원 소개

숭실대 '92 황 금 녀 49

서강대 '92 장 승 주 51

■ 별첨 고양 자료 및 참고 도서

민족과 나는 공동체 입니다.

기지촌 활동을 준비하면서 단지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해 보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기지촌 활동에 임해서는 안됩니다.

기지촌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조용한, 하지만 조금은 이상한 촌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지촌이, 기지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아픔을 기지촌 활동을 하면서 알아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지촌은 우리 사회의 갖가지 모순들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청년 학생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기지촌 활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기지촌 활동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민족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힘모아 풀어나가는데 선봉이 되는 기지촌 활동 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과 조국의 앞날이 어떻게 함께 변화발전하는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기지촌 활동을 하는 매순간순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치열하게 기지촌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통일원년 기활대원이 되십시오.

무더운 여름, 땀띠가 나도록 열심히
그러나, 건강하게 활동하셨으면 합니다.

1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9기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자주 정희 총여학생회장

이 선 희 드림

기지촌은 활동은 조국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땅 청년학생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학생이 간직한 조국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학우들이 다양한 삶의 공간에서 조국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여행, 부족한 학문적인 요구를 채우려는 도서관 공부나 어학 연수, 그리고 농촌활동, 공장활동, 통일선봉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여기 우리 여학우들이 실천하는 조국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지촌 활동입니다. 기지촌은 성, 계급, 민족의 아픔이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그 곳에 들어가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여학우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6월 말부터 전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학우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지촌 여성들은 이 땅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민중들입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왔으며 기지촌에 들어와서 기형적이고 기생적인 사회경제구조와 퇴폐문화로 인해 굴절된 삶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매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고 민중의 삶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체념에 내몰린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일지라도)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기지촌을 보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지촌은 미군이 한국에 진주하면서부터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많은 우리의 누이들이 다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민족의 보호자가 아닌 미국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얼마전 미군에 의해 벌어진 지하철 시민 폭행 사건으로 한미 행정 협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지촌 활동이 한미행정협정을 깨뜨리고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겠다라는 결의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8.15 행사가 그 어느해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올해가 해방50년, 분단50주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민족이 통일로 가느냐 분단이 지속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15 대회의 대중적 성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사장에서 만나뵈었으면 합니다.

너무 바램만 적었나 봅니다.

여학우들은 한총련의 절반입니다. 그것은 한총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구요.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합니다.

제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정 태 홍

주체혁신의 기지촌 활동이 되었으면.....

농촌활동을 통해서 강고한 농-학연대 활동으로 일구어낸
우리 선배님들의 피나는 땀방울과
조국사랑의 열정을 되새겨 봅니다.

조직적으로 묶으려는 2년의 준비기간을 바탕으로
올해도 4년째 기지촌 연대 활동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진행해온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나와 관계 맺어온 사람들의 변화를 보지 못한채
그저 답답한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주관적 사고의 오류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우리 이제
처음처럼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합시다.

서여대협 산하 동부지구 의장
4기서여대협 기획추진위원장
광운대학교 총여학생회장 강혜원 드림

기지촌 활동의 발자취

기지촌 활동은 199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다.

1990년의 첫번째 기활은 개인적으로 두레방을 알고 있거나 기지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들에 의해 의정부두레방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사이에 기지촌 여성운동이 알려지고 그들에 의해 현장에 대한 지원사업 특히 두레방빵판매와 놀이방과 공부방 자원활동등의 사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각 학교 과단위 학생회나 여성학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여 준비하였고 의정부두레방과 동두천두레방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활동에 참여한 학교들의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여학생회가 조직되거나 강화되는 등의 성과를 남겼다.

이러한 기활의 활동내용과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1992년도에는 서여대협과 수여대협이 그러한 모범을 받아안아 여대협차원에서 기활을 제안하여 준비하고 수행하였다. 1992년 기활은 본격적으로 기활이 여학생운동의 한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과 두레방에서만 진행되어 오던 기활이 참사람쉼터가 있는 송탄에서도 진행되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1993년 여대협에서 기활추진위원회라는 특위를 꾸려 체계적으로 연구,조사사업을 진행 교양까지 책입지는 모습으로 활동하였고, 매매춘관련단제인 한소리회와 연대하여 두레방(의정부, 동두천), 참사랑쉼터(송탄), 다비타의 집(동두천), 막달레다의 집(용산)에서 진행되었다.

1994년에는 두레방과 다비타의 집으로 지역이 줄어들긴 하였지만 서여대협의 거의 모든학교가 기활에 임하는 등 조직적인 모습이 갖추어 졌고 지구별 자활력을 바탕으로 좀더 다양해진 프로그램으로 임하면서 지역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는 해였다.

1995년에는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남한전체의 기활 확산을 꾀하는 차원에서 지역학교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오만 방자한 미군의 범죄행위를 근절시키고 민족 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민중의 여론이 어느때 보다 드높아 기활을 들어가는 23개 학교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기지촌 활동의 의의와 목표

I. 기활의 의의

첫째 ***기지촌 활동은***
청년 학생들과 기지촌 여성들이 서로의 삶에 서로의 변화를 주는 활동입니다.

이 땅 청년학도들은 기지촌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이 단순히 "몸을 팔아먹고 사는 여성들" 이라 하여 도덕적 타락성으로 바라보다가 그것이 우리사회에 노정 되었던 여러 제반 사회 구조적 모순임을 인식하면서 서로간의 편협된 사회적 시각을 깨뜨려 나가고 이 여성들의 삶을 남의 일 보듯 옆으로 치워두지 않고 한민족 여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며 이 땅의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몸부림치는 민중의 현실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기지촌 여성들 역시 자주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강한 청년학도들과 만남을 통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기활은 기지촌 여성들과 청년학도들의 서로의 삶에 서로 침투하여 서로를 변화 발전시키는 활동입니다.

둘째 ***기지촌 활동은***
각 단위 여학생회, 여대협과의 조직적 연대및 강화를 꾀하는 활동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자랑스런 50만 청년 여학우의 구심! 전여대협이 드디어 1기로 출범하였습니다. 기지촌 활동은 끊어진 반도의 허리를 이어가려는 식민지 조국의 청년들을 전여대협으로 묶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3기 한총련 출범 식에서 기지촌 문제에 대한 강연회가 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반쪽이 기지촌이고 기지촌 활동은 서울 지역 여대생만의 문제가 아닌 남한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이것의 대중 조직화는 단위 여학생회와 서여대협 그리고 전여대협의 조직, 연대및 강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기지촌 활동은 미군범죄 근절투쟁을 내용 조직적인 면에서 발전시키며 이는 민족사적 대전환기인 95투일 원년을 실현하는데 참가를 이 되는 것입니다.***

"92년 윤금이 누이 투쟁"으로 주한미군범죄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고 올해 5월 앤더슨의 지하철 성희롱및 집단 폭행 사건이 여론화 되면서 미군 범죄는 폭행 피해자 조정국씨의 단식 투쟁으로 시민 운동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간 축적되었던 지배 세력의 사대적인 태도와 그것을 등에 업고 안하 무인격으로 날뛰던 미군에 대한 한반도 민중들의 분노의 봇물이 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의 함성은 정부가 현대판 을사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을 전면 개정하고 민족자주권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인 주한미군 철수까지 강제해 내야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단 50년 해방 50년의 역사를 95년엔 바꿔야 한다라는 역사의 부름에 부응하고자 하는 통일 세력의 힘 모아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대단결의 힘으로 미군 철수, 평화협정, 국보법 철폐라는 조국통일의 제반 조건으로까지 승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중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고통으로 살찌우는자들은 이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지촌 활동은 지역운동의 기반을 넓히는 활동입니다.***

기지촌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타지 역에 비해 매우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기지촌에 모여드는 사람들 또한 우리사회에서 버림받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며 기지촌에 들어와서도 기형적이고 기생적인 경제구조와 퇴폐 문화로 인해 굴절된 삶을 강요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지촌 활동은 상처받은 민중들, 특히 여성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기지촌 지역 단체들과 함께 일하면서 작으나마 도움을 주는 살아 있는 활동입니다. 또 기지촌 활동은 활동 가운데 지역 조사등 지역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기지촌 단체가 기지촌 여성들뿐만 아니라 기지촌 지역 주민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다서씨

기지촌 활동은
기지촌의 지역 단체와 학생들 간의 일상연대 사업의 단초를 마련하는 장입니다.

기지촌 활동은 방학동안의 일시적인 활동이 아닌 일상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서만 서로의 조직 강화에 복무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학생회의 조직강화라는 측면과 각 지역 단체의 일상적인 연대 활동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서씨

기지촌 활동은
기지촌 여성 운동을 하는 지역 단체 실무자들을 변화시키고 추동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청년 학도의 기지촌 활동을 통해 현장의 실무자들을 그들이 올바른 관점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면서도 자신의 삶과 각오를 다시 각인 하는 자리입니다.

일곱씨

기지촌 활동은
기지촌 여성 운동가를 배출하는 장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실무자 분들이 기지촌 활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을 따져볼때 기지촌 활동은 명실공히 기지촌 여성운동가를 배출하는 생명력 있는 장입니다.

2. '95 여름 기지촌 활동의 목표

첫째

미군 범죄 투쟁과 제2의 을사보호 조약이라 불리는 한미행정협정의 전면 개정 투쟁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둘째

제국주의와 독재정권에 의한 성침탈은 기지촌 매매춘 뿐만 아닌 일반 매매춘까지 즉, 남한 사회를 여성의 성 상품화의 천국으로 만든다.이에 남한 사회 매춘의 현주소를 찾아가 보며 향후 좀더 새롭게 전개될 기지촌 활동의 토대를 닦는다.

셋째

왜곡된 성문화를 비롯한 저질 퇴폐 문화의 유포지는 기지촌이다.근원지의 뿌리제거 없이는 올바른 문화형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저질 퇴폐문화의 본질을 알려내는 것과 주한 미군완전 철수를 위해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넷째

일상 연대사업을 안착화 시키는 기지촌 활동으로 만들자.

다섯째

학내 여학생 운동이 가지는 대중성,독자성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학생 운동가를 양성하는 계기로 만들자.

여섯째

지역 학교 첫참여의 의의를 받아 안아 전여대협의 기지촌 활동으로 계승 발전시켜 남한 전체에 기지촌 활동을 뿌리내리자.

일곱째

기지촌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숨겨진 변화 의지를 발견하면서 희망을 나누자.

지역별 지구일정및 프로그램

◐ 동두천 다비타의 집 ◑

1. 일정

6월26일 ~ 7. 1	한양대
7. 3 ~ 8	시립대, 목원대
7.10 ~ 15	광운대, 세종대
7.17 ~ 22	경희대, 청주대
7.24 ~ 29	외국어대
7.31 ~ 8. 5	건국대

☛다비타의 집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주된 활동이 탁아활동으로 맞추어져 있어 두레방보다 기지촌 여성을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진행되온 다비타의 집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기획의 의의가 감소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기획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위해 주체적인 기획 준비가 이 시기에 꼭 필요합니다. 또한 기획의 마지막 정리를 기지촌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도가 절무한 상황입니다. 이번 기획 준비때는 목사님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동부지구 기획추장
외대 여학생위원장 '92 허나윤

2. 다비타의 집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토
7:00-	기상 , 청소 , 식사					
9:00-	예배 및 놀이방 일정 점검					
10:00-	놀이방 (자유놀이,출석)					학예회
12:30-						정리
12:30-	점심시간					이월작업
1:30-						
3:30-	간식시간					
4:00-						
5:30-	저녁시간					
6:00-	아이들 귀가 및 저녁일정 점검					
7:00-	목사님과 대화 (매매춘 실태)	부대방문 or 시민단체	에이즈환자 만남의 자리	가정방문	클럽방문	
9:00-	평 가 및 자 체 일 정					

◐ 의정부 두레방 ◑

1. 일정

7. 3 ~ 8	성균관대, 광주대
7.10 ~ 15	중앙대, 서울대
7.17 ~ 22	숭실대
7.24 ~ 29	한성대
7.31 ~ 8.5	국민대
8.7 ~ 12	서경대

2. 의정부 두레방 프로그램

■ 놀이방

	월	화	수	목	금	토
08:00-	기상. 청소. 식사.					
09:00-	차마시기					
10:30-	등방					
11:20-	자유놀이 -- 율동, 비디오 관람.					
11:30-	출석, 체조.					
11:50-	미술					
12:10-	간식					
12:30-	자유놀이					
12:50-	동화	노래	이야기	동화	노래	이야기
1:00-	하방					

☛ 11명 의 아이들, 대부분 엄마는 맞벌이 간식대일 , 자유시간때공동체 놀이 할수 있도록 하자. 예)신문지 찢기등은 아이들에게 억눌린 감정을 해소할수 있게 하는 게기 그리기는 큰 도화지에 함께 완성 하도록 하자.
꼬리 잇기등은 밖에서 할수 있다.program은 다채롭게 만들자 .

남부지구 기획 추장 — 송실대 여성문제연구학회 '92 활동녀

북부지구 기획추장 — 성근관대 연사부장 '93 김지연

■ 공동식사

12 : 00 두레방 식단과 함께 짜자. 회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자.
예)폭포수를 간다거나 차 마시기 시간을 색다르게 꾸민다거나 하자.
-기활생 : 7명
-실무자 : 사무실 3명
센터 5명
회원 7-8명 등 10명 이내

■ 공부방

1교시 3 : 00 - 4 : 00 -- 미취학 개인지도 4명
2교시 4 : 00 - 5 : 00 -- 미취학, "검은돌"아이들 국민학교 2,3학년
3교시 5 : 00 - 6 : 00 -- 3,4 5학년 아이들

■ 사무실 일 : 2명 필요함-비디오 관람 후 토론 등 집적 기획 수행
로테이션

■ 기지방문 : 목 요일 (카츄사 간담회)

■ 클럽방문 : 금요일

■ 지역 조사: 사무실 자활가, 비디오 토론 우리들이 필요한 내용, 집적 활동

◐ 동두천 두레방 ◑

1. 일정

7. 3 ~ 8	경희대(수원)
7.10 ~ 15	외국어대(용인)
7.17 ~ 22	연세대
7.24 ~ 29	서강대
7.31 ~ 8. 5	홍익대
8.7 ~ 12	경기대

☛ 90년 12월 3일에 동두천에도 두레방을 열었다. 거대한 미군 기지와 그 주변 주거권이 하나의 기지촌으로 형성되어 발전해온 동두천에서 두레방이 문을 연 곳은 주한 미군중 가장 중요한 지상군 기지이고, 1만 5천의 미군을 포함하고 있는 캠프 케이시 (Camp casey 제 12보병 사단) 미군 부대의 바로 옆이다. 이 곳은 기지촌의 여성들이 가슴속에 맺힌 한과 억눌림, 분노를 풀 수 있는 편안한 쉼터이다.

서부지구 기획조직
연대 총여학생회 환경국장 '93 신유정

2. 동두천 두레방 프로그램

	월	화	수	목	금
06:00		기상			
08:00	출근	아침식사, 청소			
10:00	조회				
10:30	주제별 토론				
12:00	식사 준비				
13:00	공동 식사				
14:00	회원과의 만남				
15:00	공부방				
18:00	자체일정	회원집 방문	부대 방문	동두천시 대학생회 간담회	클럽 방문
21:00	평가, 일지 쓰기, 내일 활동준비				전체 평가

주한 미군아!!

이제, 이땅을 떠나라

1 주한 미군의 범죄 실태와 그 원인

2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1

주한 미군의 범죄 실태와 그 원인

I. 들어가는 글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범죄는 미군이 한국에 첫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은 1910년 이래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고통받아 왔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해 피를 흘렸으며, 모든 한국인들은 한국의 독립과 자주를 염원해 왔다. 한국인들의 투쟁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힘들이 모여져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는 패망하였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과 의욕으로 가득찼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킨다고 발표하였고 당연히 모든 한국인들은 미군을 해방군으로 맞이하였다.

1945년9월 8일 한국의 인천항에는 '해방군'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미군을 환영하러 나온 수많은 한국인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미군의 경비를 맡은 일본군은 미군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환영대열의 앞에 있던 조선노조 인천 중앙위원회 위원장 권평근(당시 47세)씨와 인천 보안대원 이석우(당시 26세)씨가 일본군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해방군을 환영하러 나갔다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이유로 진주한 미군이 보는 앞에서 총을 맞고 숨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미군은 일본경찰을 제지하기는 커녕 일본군의 총격에 항의하는 한국인들에게 총을 겨누고 한국인들을 쫓아냈다. 미군의 죄목은 '살인방조죄'였다. 이렇듯 주한미군과 한국인들과의 첫 만남은 비극과 원한으로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한국에서 '주한미군 범죄 50년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II. 주한미군 범죄 50년사의 일부

1. 주한미군의 한국인 사냥

1948년 3월, 서울 성동역을 떠난 춘천행 열차가 강촌을 지날 무렵부터 브라운이

라는 두 미군사병이 열차에 타고 있던 15세 소년 김경선군과 강현시군에게 각각 덤벼들어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려 했다. 두 소년이 반항하자 미군들은 김군의 목을 졸라 질식시킨 후 달리는 열차 차창밖으로 내던졌다. 김군은 즉사했고 역시 내던져진 강군은 부상당했다. 1958년 4월 1일 미 제1기지에 근무하는 매커니 일병은 우편열차 안에서 성명 불상의 소녀를 능욕하고 그를 도둑으로 몰아 사살해 버렸다. 57년 3월 1일 경기도 파주에서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있던 이애도리(당시 43세), 최순희 두 여인이 미 24사단 소속 미군의 강간을 피해 도주하다 미군이 쏜 총에 맞아 최순희씨가 죽었다. 1960년 2월 13일 경상북도 왜관읍 유노인(당시 57세)을 비롯한 7명의 한국인에게 미 8군 4부대 미군 7여명이 방망이가 부러지도록 매질을 했다. 그들은 한겨울에 팬티까지 벗겨져 세 길이 넘는 물구덩이 속으로 한국인들을 몰아놓고 찬물을 끼얹었다. 머리를 구두발로 짓밟고, 3시간동안이나 짐승같이 다뤄진 유노인 등의 얼굴은 피투성이로 얼어붙었다. 피투성이 그대로 유인이 집에 돌아온 7명은 한장의 이불 밑에서 밤새도록 신음하였다. 당시 유노인은 "생각만해도 지긋지긋하다"고 몸서리를 치면서 "이런 만행은 일본제국주의 지배하에서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분개하였다. 1962년 1월 6일 경기도 파자의 나무꾼 사살 사건. 황광길씨와 마을 사람들은 함께 땔감을 구하러 뒷산에 갔다가 수십명의 미군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 미군병사들에게 사격을 당해 황씨와 유기용씨가 숨졌다.당시 나무하러갔던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마이 '오리사냥' 같았다고 한다. 1965년 전라북도 옥구군 옥산면 사정리 앞 노상에서였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권옥한(당시27세)씨를 미 제44포병부대 소속 트럭이 추월하기 시작했다. 트럭이 자전거를 추월하는 순간 이들은 마치 동물을 나꿔채듯 권씨를 향해굵은 고무줄로 만든 올가미를 던져 목을 낚았다. 그는 달리는 트럭에 50m이상을 질질 끌려 다니다가 버려졌다. 아무 이유도 없이 당한 것이다. 1986년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 중 충북 제천의 봉양 국민학교 이모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팀스프리트 훈련을 한다고 들어와 있던 미25사단 포병 대대소속 병사 5-6명에게 야산으로 납치된 후 집단 윤간을 당했다. 그녀는 당시 임신 6개월이었는데, 얼마 후집근처 야산에서 목을 맨 시체로 발견되었다.

2. 윤금이씨 살해사건

1992년 10월 28일,미 제2사단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시에서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미 제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Marcle Kenneth Lee, 당시 20세) 이병에 의해 미군클럽 종업원인 한국인 윤금이(당시 26세)씨가 처참하

게 살해당했다. 살해된 윤금이씨는 도저히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발가벗겨져 온몸이 피투성이인 윤금이씨의 자궁에는 콜라병이 박혀 있었고, 항문에는 우산대가 직장까지 27cm가량 꽂혀 있었으며,온몸이 하얀 세제가루로 뒤덮혀진 채 입에는 성냥이 물려 있었다. 방안은 온통 세제가루와 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한국은 잔혹한 미군의 범죄행위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항의로 들끓었다. 사건이 발생한 동두천에서는 도시가 생긴 이래 최대규모의 규탄집회가 열렸으며, 대학생들의 단식농성과 미군관련기관에 대한 항의시위가 계속되었고, 제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50여개 단체가 동동으로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 사건 공동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항의를 주도해 나갔으며,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는 한국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요구한 마클 이병에 대한 한국 검찰의 구속수사를 거부하였고, 공개사과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비애' 운운하면서 여론의 비난을 피해가는데만 급급했다. 마클 이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1994년 4월 21일 최종 대법원 재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사건발생 1년 6개월여만인 5월 17일 비로서 그 신병이 미군당국에서 한국정부로 넘어와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다.

3. 미군헌병대의 한국인 세모녀 감금폭행 사건

1994년 10월 25이 서울 한남동 한남빌리지(외인주택)에서 미군과 국제결혼한 딸 설은하(40)씨의 집을 다녀가던 김금순(68)씨가 '미군물품 판매상'이라는 누명을 스고 미 헌병들에게 연행되었다. 당시 김금순씨는 노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해드리라며 딸이 준 찹쌀과 쇠고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군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연행한 것이었다. 이를 항의하던 딸 설은지(30)씨와 설은하씨는 그림(Grim)중사등 미 헌병 4명에 의해 폭행당하고 강제로 수갑이 채워진 채 강제구금, 조사를 받았다. 설은하씨의 4살된 아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울며불며 경기를 일으켜도 막무가내였다. 이 과정에서 칠순이 다된 금금순씨는 큰 충격으 받아 기절해 바지에 오줌을 쌌다. 이에 설은하씨가 미 헌병들에게 병원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 헌병들은 요청을 묵살하고 김금순씨를 빙 둘러싼 채 웃고 떠들며 조롱했다. 그리고 세모녀의 혐의가 없자 연행 5시간만에 한국 경찰에 인도했다. 그것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죄를 뒤접어 씌운채. 다음날 설은주씨는 용산경찰서에 미군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한국검찰은 이 사건을 미군의 공무수행을 벗어난 범죄로 규정, 사건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기 위해 10월말 미헌병 2

명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며,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두딸이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억지주장을 벌이며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주한미군당국은 한미행정협정에 미군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에 처벌권한이 없는 것을 악용 한국정부의 수사권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한국정부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당국은 질서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영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미군당국의 '체포(arrest)'는 단순한 신병확보만을 의미할 뿐 구금해서 조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폭행을 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직권남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경우 미헌병의 오해(미제물품 판매상)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사실확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을 연행, 구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백히 한미행정협정 위반이며 한국인에 대한 중대한 인권유린행위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같은 행위가 지난 1년동안 파악된 것만 4-5차례에 이른다는 것이다. 1994년 1월 서울 미8군사령부에서는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 정양환(47)씨가 영외에서 미군과 사소한 시비를 벌인 것을 빌미고 미군에게 폭생을 가했다며 허위신고해, 미군헌명대가 정양환씨를 수갑을 채워서 강제로 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해 동료기사들의 거센항의를 받았다. 또 94년 3월에는 동두천에서 역시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 김지호(29세)씨가 역시 미군의 허위 고발로 미헌병대에 강제로 연행되었다.그리고 동두천에서만 올 1-3월 사이에 이와같이 사건이 2-3건 발생했다. 미군당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지만 이러한 악순환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사건은 미군병사 개인으로 인한 범죄, 인권유린이 아니라 미헌병대라는 공적기구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미군 범법자를 검거하면 즉시 미군당국에 통고해 미군당국이 신병을 인수해 가는데 반해, 미군당국은 한국 민간인을 체포하고도 한국정부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자의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 더우기 한국에서는 중대한 범조가 아니며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는데 비해 미군당국에서는 사소한 마찰만 생거도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는데 이는 미군헌병대의 업무지침이라고 한다. 세모녀 폭행사건 미군피의자에 대한 소환문제, 미군헌병대의 횡포문제로 미군당국과 한국정부 그리고 한국의 제 사회단체들간에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항의시위와 투쟁이 지속되었다.그 결과 주한미군측에서 공개사과문을 보내 왔으나 여전히 공무집행수행중의 일이었다며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얼버무리는 작태를 끝까지 고수했다.

III. 주한미군 범죄의 현황과 그 유형

한국정부가 밝힌 '주한미군 범죄의 연대별 현황 및 처리과정'에 따르면 1967년부터 87년까지의 미군범죄는 39,542견의 범죄에 43,183명의 미군이 가담했다. 그리고 1992년 국회 국정감사 법무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1991년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된 이후 92년 8월말까지 미군범죄는 1,197건이다. 이 통계를 분석하면 미군범죄는 하루 평균 5건, 연평균 2,000여건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주한미군이 3만 7천명임과 비교해보라)이며, 1945년 미군주둔 이후의 범죄를 모두 합치면 10만건이 훨씬 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 더구나 1967년 이후에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처벌권한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어진 것을 감안할 때, 1967년 이전 즉 한국정부의 처벌권한이 없었을 때 미군범죄가 얼마나 극심했겟는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많은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해 처벌한 것은 연평균 10여건으로 전체발생건수의 0.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99%이상의 범죄는 미군당국에 의해 처리되게 되는데 대부분 주의, 견책, 불명예제대 등 행정적 징계라는 미온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약 50% 정도만 그 처리결과가 한국정부에 통보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국정부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100명중 한명 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나토는 52%, 일본은 32%, 필리핀은 21%의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최근의 통계는 1992년 10월부터 1993년 8월까지 현황인데 총 8백 50건의 미군범죄 중 단 10건인 1.17%만이 한구정부에 의해서 재판권이 행사되었다. 이는 한국은 '미군의 범죄천국'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에게 피해를 당한 한국인들은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절차(한미행정협정 23조)가 있지만 불평등한 조항때문에 한국인의 권리가 극히 제한돼, 손해배상 신청을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고 그 절차와 규정이 복잡해 실제 피해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당장의 치료비조차 없는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절차를 밟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몇푼 안되는 합의금을 받는

간, 폭생, 사기, 절도, 밀수, 마약, 방화 등 온갖 종류의 범죄를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미군범죄는 이런 직접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저질퇴폐문화 유표, PX불법유출을 통한 거대한 암시장의 형성 등 광범위한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다.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계기로 미군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거세어지자 잠시 주춤했던 미군범죄는 최근에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경찰청의 집계에 의하면 1993년 1-11월까지의 미군범죄는 159건으로, 1993년 같은 기간동안의 109건에 비해 무려 46%가 증가했다. 미군주둔 이후 줄잡아 10만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미군범죄에 희생되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원한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Ⅳ. 미군범죄가 심각한 양태로 계속되고 있는 원인는 글

미군범죄 심각성의 원인은 전반적인 한미관계의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1. 안하무인의 주한미군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와 있다는 생각으로 오만방자함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민을 멸시하고 한국민의 인명을 경시하고 있다. 이 점은 미군들의 범죄동기에서 분명히 드러눈데, 살인, 폭행의 경우 미군들의 범행이유를 살펴보면 '아무 이유없이, 강간을 피해 도주하자, 길을 물어 알려주자, 싸움하는 것을 말리자, 잠을 깨웠다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잼을 많이 먹는다고, 말을 불여 온다고, 미국여자를 차에 태웠다고, 따라다닌다고, 따라오지 않는다고' 등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범행동기가 '아무 이유없이' 라는 것이다. 즉 미군은 아무 이유없이, 공연히, 사소한 시비 끝에 한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폭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미군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미명아래 아주 공격적으로 고육, 훈련되고 있다. 미군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주한미군의 주력 미 2사단의 표어가 출생은 우연(Live by Chance), 사랑은 선택(Love by Choice), 살인은 직업(Kill by Profession)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 주한미군들 대부분이 사회하층이고 저질문화에 빠져 있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다. 미군들 중 상당수가 빈민가 출신이고, 그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와 있다. 이런 미군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것은 미군범죄자를 대하는 미군당국의 태도이다. 주한미군 당국은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처벌해야 될 미군에 대해서도 대부분 주의, 견책 등의 행정적

징계로 처리하고 있다. 그들에게 미군범죄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는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윤금이씨 사건때 '윤금이 공대위'가 공개사가와 범죄근절대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대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리스카시(Robert W.Riscassi)는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다음과 같이 당당히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의 긴말한 유대관계의 일환으로서 미군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년 이상에 달하는 우리의 우방관계를 통하여 실로 수십만명의 미군들이 대한민국의 방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집과 가정을 떠나 이곳에 왔으며…"

2. 무기력한 한국정부

한국정부의 미군범죄에 대한 0.7%의 재판권행사율은 한국정부가 미군범죄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실제로 일선경찰에서는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공정한 수사를 하기보다 피해자들을 무마하기에 급급하며, 심지어는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또 재판권 행사에 있어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검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경미하다 하여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면 당연히 구속기소되고 엄중처벌되는 사건이 미군의 소행이면 어느덧 경미한 사건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관'이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미국이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미군당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재판권을 행사하고, 미군범죄를 적당히 처리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버린 것이다. 아마도 한국정부는 미군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외교상의 마찰을 일으켜 한국의 국가이익이 손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부분은 감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미군범죄를 대하는 한국정부에게서는 주권에 대한 의지도 민족의 자존심도 찾아 볼 수 없다.

3.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미행정협정이라 불리워지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한미행정협정의 수많은 불평등 조항에 의해 미군들은 법의 심판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그 불평등성이 여론의 지탄을 받아 1991년에 개정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본문과 합의의사록은 손대지 않은 채 하위규정인 양해사항만 부분적으로 개정한 껍데기 개정 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거의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러나 이것도 다른 독소조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의 형사관할권과 관련된 22조의 대표적 독소조항을 살펴보면

① 미군의 군속이나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협정 22조 1항:미군의 군속이나 가족 등 민간인은 미군의 형사관할권 대상)

미군의 가족이나 군속의 범죄시 미군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한국은 형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미군은 가족이나 군속의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까? 그렇지 않다. 1960년 미국 대법원은 군속과 가족을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더구나 한미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에는 '평화시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 재푼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당국은 미군가족이나 군속의 범죄에 대해서는 행정적, 징계적 조치만이 가능하다. 결국 군속과 가족은 미국으로 소환하여 재판을 받게해야 하는데 이거이 얼마나 이루어질까? NATO협정의 경우네는 해당국가는 미군의 군속과 가족에게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② 한국에 전속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은 그 전속관할권을 포기할 수 있다. (합의의사록 22조 2항)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한,미 어느 일방 당사국이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관할권'과 한,미 양국이 다같이 행사할 수 있는 '경합적 관할권'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조항에 따르면 한국측에 전속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국이 요청하면 한국이 포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미국이 요청하면 형사권이 미군당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윤금이씨 사건은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관심밖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종종 그런 일이 있어 왔다. 한국측의 형사권이 완전하게 보장된 범죄는 없게 되는 것이다.

③ 한미양측이 모두 형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미국이 요청하면 한국은 포기한다.

(협정 22조 3항:미군이 그 구성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이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미군이 요청하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적 행사권을 포기한다)

앞에서 말한 '경합적 관할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합적 관할권의 경우 특별한

(?) 사안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말이다. 이는 런던협정 7조 3항이나 미일협정 17조 3항에서 '포기를 요청하면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④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군도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협정 제22조 7항:한국법원에서 징역형을 받고 한국교도소에서 수감중인 미군구성원의 신병인도를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측은 '호의적 고료'를 해야 한다.)

'호의적 고려'는 한미간의 역학관계(대미예속성)상 미국이 요청하면 반드시 요청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호의적 고려'는 단순한 고려가 아니라 '명령'이다. 일례로 87년 동두천 택시기사를 면도칼로 살해한 미군의 경우를 살펴보자. 정당하게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면도칼로 살해했지만 불과 3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잠시 한국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되어 불명예제대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는 한국법원의 선고 효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을 죽여도 잠시 고생하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것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⑤ 주한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합의의사록 제9항 (카):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불신하고 재판을 거부할 자유를 미군에게 부여하는 결과가 되게 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무시하고 침해한 것이며 미군부1대내에서 한국 택시 운전기사를 현행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수사나 증거도 없이 함부로 수갑채우고 연행하는 미군들의 태도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미군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에따라 미군당국에서는 공무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도 공무라고 우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등 한미행정협정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독소적이고 불평등한 조항으로 가득차 있어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인의 인권과 생명보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군범죄를 합법화하는 '면죄부'인 셈이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의 문제는 제 22조에 그치지 않는다. 제5조에서는 미군기지와 시설의 무상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미군기지 반환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완벽한 책임회피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밖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23조의 민사청구권, 한국이 노무자의 노동권을 결정적으로제약한 제17조 노무조항 등을 비롯해 출입국 관리,통관,관세 등에 있어 미군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있어,한미행정협정은 한마디로 미군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합법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살표보도록 하겠다.

@2

한미 행정 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미군범죄와 관련된 한미행정협정 제22조,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책임면제와 관련된 제4조와 제6조에 대해서는 앞글에서 개괄적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나머지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한미 행정 협정이란 무엇인가?

한국에서의 미군의 주둔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합법화 되는데, 제4조에 따르면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 고 되어 있고, 제6조에는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라고 명기 되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게 된 미군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생기는 법적인 지위문제였는데, 이를 규정한 것이 한미행정협정이다. 즉 한미행정협정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르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서,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라고도 한다.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나 그 구성원은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데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국가안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또한 군대라는 특수기관을 고료하여 쌍방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행정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그런데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서 여기서는 간단히 한미행정협정(한미 SOFA)라 하겠다.

II. 한미 행정 협정의 변천과정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 협정은 1948년 8월 24일 체결된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으로, 이 협정은 1949.9.9. 미군의 철수로 효력이 완전 상실되었으며, 1950.6.25 발발로 다시 미군이 한국에 진주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요구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전시중에 각서형식으로 대전협정이 체결되고, 경제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어협정이 연이어 체결되게 되었다. 이 협정들은 미군및 군속에 대하여 미국당국에 전속적, 배타적 재판권을 부여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서,대한민국의 주권이 크게 침해된 가장 후진국형 협정이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때부터 한국측은 미국에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협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미국측은 이를 회피 하였으며, 그후 주한미군들의 탈선사건의 증대와 한국여론의 분노가 비등해지자 비로소 미국은 협상에 응하기 시작하여 우역곡절 끝에 1966.7.9. 비로소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체결되어 1967.2.9. 부터 발효되게 되었다. 이로써 종래의 대전협정, 마이어협정은 폐기되었다. 1967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은 외형적으로 타국협정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국제법상 가장 후진적이라고 평가되는 '미국-이디오피아 협정'과 다름이 없었다. 1980년대 후반데 들어서면서 한국인들의 '반미의식'의 성장에 따라 한미행정협정의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자 1991년 2월 1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사기극'이었다. 개정된 것은 전체 협정의 내용 중 22조의 몇 개 조항에 불과했고, 개정된 조항도 다른 조항의 침해를 받아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개정이었다. 한미행정협정은 냉전구도에서의 "시혜를 베푸는 자(미군)"와 "은혜를 받는자(한국)"라는 일방적 불평등관계에서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한미행정협정은 역사적으로 몇차례 변천과정을 거쳤지만, 몇몇 조항의 부분적인 변화였을 뿐 그 불평등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 지적이다. 그 구체적인 문제점을 시설 및 구역, 민사청구권, 노무조항, 출입국, 통관, 관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한미행정협정의 주요 조항 해설

1. 시설 및 구역

1) 주한미군기지의 무상사용 문제

본협정 제2조 1항 (가) :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본협정 제3조 1항 :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협정 제5조 2항 :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제2조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 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고나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한다.

주한미군에 대하여 제공하는 시설과 구역의 공여에 대한 대가는 한국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미측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 분담과 관련해 기지를 무상 임대함으로써 미국에 사실상 제공한 간접지원 연간 16억 달러로 매년 방위분담금으로 지불하는 25-30억 달러의 직접지원을 합하면, 독일과 일본 각각 12억 달러보다 월등히 많다.연중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피히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동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폭사로고 인한 생명의 위협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을 갖고 있지 못한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의 예를 들어보자.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첫재로, 사격장 조성을 위하여 500만 평의 연안 황금어장과 50만평의 농경지 및 임야를 징발당하여 싯가에 못미치는 징발 보상금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후 어장의 상실로 인한 어획량의 격감과 경지면적의 축소로 인한 오업소득의 감소로 만성적인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다. 1968년 징발 당시 주민들은 사격장 지역으로 편입된 연안어장에서 연평균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당시의 어업권에 대한 징발보상가액은 총액 1.000만원이었고, 농경지는 당시 싯가의 3분의 1정도의 가격으로 징발되었다. 68년 당시 평당 500원 내지 600만원의 농경지가 평당 180원 내지 230원에 징발되었다. 1967년 매향리 주민 이영자씨가 만삭의 몸으로 사격장 인근 해안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중 오폭 투하된 포탄에 의해 등을 관통 당하고 사망하였다. 사고 후 미군 당국에서는 진상규명은 커녕 사망한 이씨의 남편 한장수씨를 사격장 경비원으로 채용하고 이를 무마시켰다. 미군 지휘관인 C.W.앤더슨 소령은 당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사격장 부근 주민들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러나 이곳이 한국내의 하나밖에 없는 사격장으로 미공군 전력의 사활이 걸려있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보상과 기지 이전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국내의 문제" 이며, "미공군은 손님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주한미군기지의 계속사용 및 반환은 미군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본협정 제2조 3항: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지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같이 반환된다는 견지에서 동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현재의 규정에는 어느쪽이 시설과 구역을 계속 사용하는 필요성을 판단하는지에 관하여 불분명하다. 외무부에서는 제2조 3항의 문리해석상 미군측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영토고권과 관련하여 볼때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 유무는 주둔군대 당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맡겨두는 것은 불합리하며 미군기지가 이전하게 될 때에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이 소멸되더라도 한미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으나, 일본의 경우처럼 필요성이 소멸되면 바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구나 현재 규정에는 한,미 합동위원회의 개최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방적으로 미군 측에 맡겨두는 모습을 띠게 된다. 부천시 오정동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미군이 철수한다해도 바로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천속의 작은 미국'으로 일컬어진 오정도 미44공병대대는 54년 7월 오정동에 첫발을 디딘 이래 38년간 주둔해 오다 92년 9월 30일 파주군 봉일천 일대로 이전을 끝마쳤다. 인구밀도가 높고 주거공간이 부족한 부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미44공병대대 부지는 부대가 옮겨감과 동시에 시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미44공병대대 부지 13만평의 사용권은 부대 이전과 관계없이 여전히 미군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관계자는 "미44공병대대 부지의 사용권은 미44공병대대"라고 밝히고 "미군이 스스로 반환할 때까지 그대로 놓아둘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44공병대대 부지 13만평은 미군의 사용권 주장때문에 부대가 이전한 지 2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미군측은 서울 용산 일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피복과 음식물 찌꺼기등 각종 쓰레기처리를 용역업체인 경남기업에게 하청을 준뒤 미44공병대대 부지를 분리수거 및 스레

게 소각장소로 제공사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군부대 앞에서 올해로 11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얼마전부터 저녁무렵이면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곤 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면서 "겨우 미군 쓰레기나 치우려고 13만평이나 되는 노른자위 땅을 놀리느냐"고 말하였다.

2. *민사청구권*

1) 미군의 손해배상에 있어 한국정부의 부당한 책임

한미행정협정 제23조 5항 (마)의 (1) : (공무 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저지른 행위로)합중국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 민국이 그의 25퍼센트를, 합중국이 그의 75퍼센트를 부다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공무집행 중이라 하더라도 미군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더구나 공무의 개념이 기타 정황과 더불어 공무수행 증명서의 소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공무수행 증명서를 발행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미군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다.

2) 민사청구권에 있어 절차의 복잡성

한미행정협정제23조6항 : (가) 대한민국당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포함한 해당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사려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조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조정하며,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그 보고서는 합중국 관계당국에 송사되며, 합중국 당국은 지체없이 배상금 지급의 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배상금 지급의 제의가 행하여진 경우,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써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및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한다.

93년 12월 16일 파주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한창열 씨는 승차했던 미군 2명이 갑자기 강도로 돌면해 목을 칼로 찔리는 중상을 당했다. 동료 기사들의 도움으로 미군들이 검거되고 한씨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나 한씨는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평행 장애 진단까지 받아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으라는 병원 측의 진단을 무시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를 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창열씨는 사건발생 1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배상 절차는 너무 시일이 길고 복잡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계속 주고 있다. 더구나 1면이상

기다려 배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파해 정도에 비해 현격하게 적은 액수라면 범죄 미군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판결집행의 어려움으로(본협정 제23조 9항, 배상을 강제할 만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해 놓지 않았다)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는다. 민사청구에 관한 조항은 "나토협정" 이나 "미,일협정"에 비해 절차 규정상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 너무 까다로와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3. 노무 조항

1)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노동권이 박탈되어 있다.

한미행정협정 제17조 3항 : 합중국군 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합중국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 조건,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

언뜻 보면 대한민국 노동법에 충실한 것처럼 되어 있는 위의 규정은 "군사상의 필요"라는 모호한 개념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2항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사적 필요라는 막연한 개념을 해고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난다. '군사상 필요'를 판단하는 주체가 미군측에 있으므로 한국인 노무자들에 대해 미군당국은 '군사상 필요'라는 미명으로 그들의 제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2) 한국이 노동자의 참여가 없는 한미합동위원회

한미행정협정 제17조 제4항 3) :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는 확증하에 그 쟁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한미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부대표와 미군측 대표로 이루어지고 최종 결정력을 가지느데 여기서는 노사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미군당국의 대표자만 참여하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고용원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고용원 대표의 참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협정으로는 한국인 노동자 대표의 참여는 원천봉쇄되어 있는 셈이어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높다.

3) 노동쟁의시 지나치게 긴 냉각기간으로 노동재의가 불가능하다.

한미행정협정 제17조 제4항 5) :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쟁의가 한미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한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위의 규정은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70일 동안은 단체 행동을 포함한 쟁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70일간의 냉각기간은 한국의 노동쟁의 조정법(제14조)상의 냉각기간(일반사업체 10일,공익사업체 15일)보다 훨씬 장기간이어서 일반 노동자들보다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냉각 기간이 너무 길어 쟁의 자체를 위축 시키고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

4. 출입국통관관세 및 조세등의 특혜 문제

1) 출입국의 문제

본협정 제8조 2항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본협정 제8조 4항 : 군속, 그들의 가족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인 합중국 당국이 발급한 절절한 문서를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함에 있어서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동안, 그들의 신분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군대는 접수국에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입하므로 접수국가의 출입국 관리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의 출입규정은 타국 사례에 비교하여 불합리한점이 많다. 즉 한국에 출입국하는 미군 구성원은 물로 군속 및 그들의 가족들도 한국 출입국 관리절차의 규제를 받지 않고 미군 당국이 발부한 적절한 문서만 있으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나라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느냐의 척도는 출입국 관리, 관세권, 조세권이 자주적으로 생하되느나에 달려있다. 나토협정 제3조 3항은 군속 및 그 가족등 민간인은 여권을 소지하고 그 규제를 받으며 다만 외국군대의 가족임을 여권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토 당사국 보충 협정 제5조2항에서는 군용비행장을 통한 미군, 군속 그 가족의 출입에 대해서는 한미행정협정과는 달리 일반칠입국시와 마찬가지로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군용비행장에 접근이나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비행장을 통하여 들어오는 물품이나 출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혀 통제, 확인이 되고 있지 못할 실정이다. 그것이 밀수품이든 핵무기든 말이다.

2) 미군의 밀수를 막을 길이 없다.

양해사항 제9조 5항 2 : 대한민국 관세당국은 이주 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서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 합중국당국의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미국군사우체국을 통해 우송된 군인,

군속, 가족의 이사물품이나 개인 선적화물의 검사에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 한국세관당국이 참석하게 되는 것이다. 미군부대에서 미군이나 그들의 가족들에 의하여 흘러나오는 미제 물건들이 밀수꾼들을 통하여 시중에 암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국인들은 별로 없다. 관세없이 들어오는 물건들을 사들여 이윤을 남겨가며 장사하는 등 한국 시장의 상거래를 교란시키고 있지만 허술한 법조항은 오히려 이들을 합법적으로 도와주는 인상을 받는다. 미군에게 들어온 물품을 검사하는 장소가 겨우 그들의 숙소라니 도대체 거기서 어떤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숨길 것 다 숨기고 형식적으로 한번 휘 둘러보는 것 이상 별다른 단속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3) 관세 및 과징금의 면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본협정 제9조 3항 : a)미군군대의 구성원,군속이 한국에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이들의 가족이 이러한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b)미군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과 부속품, c)미군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사용을 위하여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미국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한국에 우송하는 것

한미행정협정 제 9조 2항에 의해 주한미군은 그들의 공요을 위하거나 또는 주한미군,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모든 자재,수용품 및 비품, 그리고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우리나라에로 반입이 허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반입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의 a), b), c)에서 보듯 관세 및 과징금 면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더구나 한미행정협정 제9조에 대한 합의의사록 제3항 (가)에서는 미군의 구성원,군속, 그 가족등은 도착후 6개월내에는 합리적 분량의 각종 물품을 면세로 통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반입되는 물건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고 미군부대내 물건 판매점의 활동에 대한 규제가 없다. 현지의 미군들이 먹는 양의 쌀보다 몇 십배가 넘는 양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와 대량으로 불법유통되고 있는 미군 P.X.물품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

주)

1. 한미행정협정은 본 협정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양해사항 등 3가지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협정의 원문은 진한 고딕체로 표기한다.

2. 현재 한국에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이 1만 6천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관계의 불안정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다.

#3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최근 한국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여 문제는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실태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기지숫자는 대략 120-180여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군기지로 상용되는 땅은 최소한 서울시 전체면적의 절반규모인 9천여만평(가격기주으로는 14조 6천억우너 상당)에 달하는 방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런데 만약 전국토에 산재해 있는 그 많은 미군기지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문은 단지 의문으로서가 아니라 그동안 미군주둔 지역 주민들에 의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묵살되기 일쑤였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4년 3월 임시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한 미군기지 철수 지역의 토양이 일반지역에 비해 납은 최고 24배, 카드뮴은 최고 7배나 오염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립환경연구원이 1993년 6월부터 12울까지 서울 성동구의 캠프 이즈벨(6천평), 경북 포항의 캠프 리비(16만평),대전 대덕구의 캠프 에임즈(1백 19만평) 등 3곳의 미군 철수지역내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캠프 리비의 토양 오염도는 납의 경우 최고 143ppm으로 공원 등 일반지역의 오염도보다 24배나 높고, 카드뮴도 최고 1ppm으로 나타나 일반지역보다 7배나 심하게 오염돼 있었으며, 기지 근처 벼의 자람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캠프 에임즈는 일반지역보다 납의 오염도가 최고 6.1배나 높았고, 캠프 이즈벨은 납과 카드뮴의 오얌도가 일반 지역보다 각각 최고 9.5배와 4.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지역은 미군이 주둔하다가 92년 5월부터 7월사이에 철수한 곳으로 유류에 함유된 납 등 중금속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미군기지 환경오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3년 3월 경기도 송탄시 신장동에 있는 K-55 미공군기지에서 하루 1천 6백여톤의 각종 오,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흘려보내 근처 황구지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심한 악취고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두차례 조사한바에 따르면 두차례 모두 수질 오염도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 60ppm보다 훨씬 높은 112ppm과 121ppm

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히 고발되어야 할 수치다. K-55 미공군 기지는 하루 발생오니는 오, 폐수 5천여톤 가운데 3천 4백톤만 처리하고 나머지 1천 6백여톤은 정화하지 않은 채 황구지천으로 슬려 보내고 있다. 그리고 1993년 3월 환경처의 확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매년 염화폴리비페닐(pcb), 폐타이어, 폐윤활유, 오일 등 특정 폐기물을 수천톤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를 대부분 국내위탁처리업자를 통해 불법처리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은 89년 3월 유엔환경계획(UNEF)이 발의한 바젤협약에 의해 국가간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주한미군은 미 국내법에 외국에서 미군이 발생시킨 폐기물은 본국에 가져올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큰 충격을 주었던 1994년 낙동강 수돗물 오염사건 때에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롤에서 정화가 안된 생활폐수를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동정천으로 마구 흘려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캠프 캐롤은 낙동강에서 불과 2K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으며, 정확한 오염도는 미군당국이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으나 1일 배출생활오폐수는 수백톤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의 온상이자 사각지대로서 존재하고 있다. 왜 이렇게 속수무책인가? 그것은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준 한미행정협정과 정부의 사대적인 자세, 미군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이다. 한미행정협정은 4조에서 '미합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환경오염에 대한 완벽한 책임회피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 이 협정 6조는 '합중국 군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 하수오물처리 용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주한미군의 하수, 폐기물 등 뒤치다꺼리를 한국정부가 떠맡도록 하는 등 엄청난 불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저자세도 문제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환경오염문제도 아무런 대책도 노력도 없다. 그저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뿐이다. 더구나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자 1993년 7월 한미합동위우너회 산하에 환경분과위원획 구성되었으나 10월에 상견례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회의를 갖지도 못했다. 게다가 이 위원회의 운영지침은 위원회의 역할을 양국 정부에 대한 권고나 조언으로 제한하고 있고, 오염실태등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자세다. 자신들이 오염을 시켜놓고 한국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송탄 K-55 공군기지의 경우 주민들의 거센항의에 밀

려 평택군청 등이 세차례에 걸쳐 시정고운들 보냈으나 묵살되었다. 미군당국은 본국정부에 정화시설 비용으로 1천 2백만 달러를 요청했으나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거절됐다며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도 한국쪽에서 적극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다른 미군주둔국에서는 전혀 다르다. 사실 미군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둔하는 모든 국가에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다. 1992년 10월30일자 '유에스 앤드 월드 리포티'지에 보도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 1981년 8월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작성한 52쪽 분량의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필리핀 등 10개의 미군기지에서 미국의 환경법을 무시하고 독성 및 폐기물들이 버려지고 있으며, 해외에 있는 대부분의 미군기지에서는 주둔국의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해외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따라 미국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미군기지 정화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2곳의 폐기물 처분장 주변오염정화와 공군기지 송유관에서 유출된 기름을 정화하는데 각각 2백 50억 달러를들여 미국내 군사기지의 오염을 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UR이라는 무기로 한국의 농촌을 파탄시킨데 이어 새로운 개방압력의 수단으로 한국의 환경오염에 대해 그린라운드라는 무기를 들고 나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미군범죄의 천국 한국이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천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백순실 할머니의 황혼

언제인가 어떤 소설가에게 한 기지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그랬더니 소설가는 그 기지촌 여성에게 백순실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 후부터는 나도 강연을 다닐 때마다 그 여성을 백순실 할머니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기지촌 여성 공동체(이하 공동체)에는 아줌마라는 고유명사로 불리는 분이 계시다.

백순실 아줌마. 73살의 고령의 나이이지만 우리는 그녀를 그냥 아줌마라 부른다. 그녀는 실내에서도 항상 머플러를 쓰고 계신다. 행여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는 공동식사를 준비하다가 머리카락 같은 티끌이라도 들어갈까 염려해서이다.

그녀는 머플러와 함께 늘 짙은 화장을 하고 계신다. 자신의 실제 나이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다. 실제 그녀는 1923년생으로 일흔이 넘었고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주름이 가득 베인 할머니이다.

기지촌에서는 고령의 나이가 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제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까닭에 그녀는 공동체에 오기 직전까지 '히빠리'(히빠리란 밤거리에서 지나가는 미군을 붙잡아 매매춘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주로 아줌마처럼 클럽에서 일하기엔 너무 나이 들어 버린 여성들이 하게 된다.)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히빠리 생활이라도 근근히 하기 위해선 나이와 외모를 속여야만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취한 미군이라도 붙잡기 위해 짙은 화장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양산을 쓴 채 뒷골목으로 나섰다. 다행히 나이 어린 미군이 한명 잡혔다. 흥정은 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밤은 공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으며 긴 밤을 보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화장이 지워진 채 잠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그 미군은 자신이 할머니와 함께 잤다는 사실에 기겁을 하며 돈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을 쳤다는 것이다.

그녀는 히빠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나이를 속인다. 항상 50세의 턱걸이 나이를 말하지만 늘 일정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평생해왔던 몸파는

일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이해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직업을 잃고 싶지 않아서이다. 혹여 자신의 실제 나이가 많으면 더 이상 공동체에서 일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지니고 있는 약간의 중국어, 일어, 영어 실력과 해방 직후 역사에 대한 해박함은 '정신대' 라는 오욕의 삶으로 일그러졌던 젊은 날의 흔적임을 작 알 수가 있다. 그녀는 그 이후의 삶 역시도 자신과는 무관하게 제국주의 군홧발 아래서, 기지촌이라는 매매춘 시장에서 전전긍긍하며 일혼의 삶을 채워 왔다.

공동체는 그런 그녀에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변화'를 가져다 준 곳이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속으며 선택하지 않은 삶을 강요당했고, 언제부터인가는 자신도 상스러운 욕과 남을 속이는 일에 익숙해졌던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처음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의 벽들을 쉽게 극복할 수 없었다.

문혜림 선생님의 제안으로 처음 공동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차려 놓은 밥상 앞에 앉지 않았다.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있어선 있을 수 없는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른다.

"아줌마, 이리 오셔서 같이 드세요"

옆에서 보다 못한 동료 실무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막무가내다. 그 모습을 본 한 여성이 이렇게 귀띔해 주는 것이었다.

"저 언니는 옛날에 포주한테 밥을 많이 먹는다고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데. 아마 그래서 그 럴꺼야"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녀가 밥상 앞에 함께 앉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년. 그렇게 1년이 걸려서 밥상 앞에 앉기는 했지만 밥그릇은 여전히 바닥에 내려 놓은 채 밥도 반찬도 아주 조금씩만 먹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언제인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오징어 반찬만 열심히 사다 날라 예전의 피해 의식으로 둘러쳐져 있는 아줌마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낯선 사람과의 대면을 회피했고, 제 몫을 못해 내면 쫓겨날까 봐 입을 꾹 다문 채 일만하던 모습. 두레방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선뜻 우리를 믿기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제까지 쌓였던 불신의 벽이 너무 두터웠기 때문이리라. 가끔씩은 아직도 그런 피해 의식으로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감당하기 벅찬 것이 사실이지만 누구보다도 정이 많고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우리를 격려해 줄 때면 이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과이자

보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는 낯선 사람에 대한 기피증도, 그리고 밥상 앞에 처음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사람에게도 세심한 관심을 보여준다. 많이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소복이 쌓인 밥 위로 또한번 주걱 질을 해대는 아줌마의 모습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담북 지니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을 확인하게 해준다.

한 동료 실무자는 아줌마의 변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어쩌면 아줌마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제외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계신지도 몰라."

지금 그녀는 자신의 삶에 변화를 준 공동체의 활동과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있고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와 타인으로부터의 애정을 확인하면서 공동체의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삶의 유일한 보람으로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양공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위안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미친년, 그런 년 때문에 다른 년들까지 싸게 먹히는 거라고. 하여튼 그런 년들 땜에.. "

롱타임에 100불하는 요즘에 어떤 미친년이 20불을 받고 잠을 잤다며 한참 욕을 늘어놓고 있었다.

"나냐 뭐 이제 미군들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줌마의 독백이었다. 아줌마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

"야. 느그들 내 소원이 뭐신 줄 한번 알아 맞춰 봐라"

"웅, 월급 오르는 거"

"피잇, 그까짓 월급이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이가"

"그럼 뭔데요 아줌마"

궁금증으로 대답을 재촉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게 뭐시냐면, 청춘이라 청춘. 뭐 청춘만 돌이킬 수 있다면 뭐시든지 할 끼다."

지금과 같은 삶으로 다시 살수 있는 청춘이라면 적어도 일본군에게 혹사당하고 미군에게 능욕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포주에게 매맞는 그런 일도 없는 청춘을 살아보고 싶은 그녀의 욕심을 그 누가 과하다 욕을 할 수 있을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언제인가 고향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그 곳에서 만난 고향의 농사 짓는 젊은이가 자신에게 선을 보여달라고 했다며 이야기를 늘어놓으신다.

"내가 뭐라고 했는줄 아나?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도 말라고 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어디 농사질라고 하나 말이다"
"그건 그래요 아줌마"
"그래도 난 아니야. 내 나이가 삼십만 되었어도, 아니 사십만 되었어도 난 농사꾼한테 시집갔을 끼다."
"아줌마 농사일 힘들잖아요. 밥도 해야지, 애도 낳아야지, 밭도 매야지 얼마나 지겨워요"
"야좀 봐라 그 기 올매나 좋은 긴데 느는 아직 어려서 몰라"
그래 우리는 아직 어려서, 어쩌면 아줌마와 같은 삶을 겪어보지 않아 서 그럴지도 모른다.

변화된 삶.
하지만 고생만이 지루하게 연속되었던 삶의 그늘을 말끔히 걷어낼수는 없는 것일까. 머리의 머플러와 짙은 화장이 역사의 짐을 켜켜히 담고 계신 우리들 할머니의 모습을 어색하게 가리고 있다.
아줌마를 대할 때면 이 일을 하겠다고 각오하면서 읽었던 책한 권이 떠오른다. 중국에서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2년 반이라는 철저한 준비작업을 거쳐 신중하게 벌였던 '창녀개조사업' 과 이 속에서 자신의 일터를 찾아 다시 건강한 인간의 삶을 찾게 되었던 중국의 수많은 창녀들의 모습 말이다. 매춘을 근절시키기 위해 매춘 여성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갑자기 매춘지역을 없앰으로써 매춘여성의 생계를 위협한다거나, 매춘여성들 대한 도덕교화작업으로만 마무리 짓지 않고 오랜 시간의 준비작업 후 그녀들에게 새로운 일터,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출구를 열어준 중국 정부의 판단은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일구어낸 백순실 할머니의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의 성과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책 속에서 내 뇌리를 떠나지 않던 여인이 한명 있다.
그 여인은 정신대로 착출되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있다가 중국의 다른 창녀들과 함께 수용되어 개조과정의 한 결실인 투표권 행사에서 자신에게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며 울부짖었다. 지금 그 여인은 무엇을 하며 그 한 많은 생을 마감하고 있을까. 어쩌면 자신에게 들 씌워진 역사를 책망하기보다는 저물어 가는 자신의 생에 대한 아쉬움만을 가슴에 가득 안은 채 자본주의에 물들어 가는 중국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얼마전 자신의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르는 날에 그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팔로는 감당하기 힘들만큼의 꽃을 선사 받고는 너무도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아줌마,아줌마가 좋아하시는 꽃에 둘러 쌓여 있으니까 행복하시죠?"

"내가 살면서 이런 날도 있어야 안되겠나?"

우리들의 물음에 노여움 없는 항변을 하시는 아줌마의 모습을 보는 저마다의 가슴에는 73세라는 노년에 갖게 되는 아줌마의 불안해하는 모습이 겹쳐지며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든다.

어느 편지

성경책에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간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온 저에게는 그 모든 말씀이 어렵고 멀어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원망과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한 인간으로서 한국인과 다른 얼굴을 가진 저이기에 겪어야 했던 일들, 이해되지 않는 많은 관계 속에서 평범한 삶보다는 다른 사람들 모르게 겉의 웃음과 속의 울음을 같이 가져야 했던 저에게는 이 성경의 말들이 너무나 먼 곳에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구요? 아빠에게 버림받았다는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가진 저에게.....

감사하라구요? 아빠의 얼굴조차 기억 못하고 저의 성이 무엇인지도, 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하던 저에게 감사와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도 당치않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만은 아니겠지만 길을 지나다가 아빠의 손을 잡고 혹은 아빠의 품에 안겨 잠을 자고, 재롱을 떠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보다는 하루하루를 돈과 생계를 위해 남자들의 노리개가 된 한 여성을 보면서, 돈을 벌기 위해 딸을 방에 가두어 두고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일을 나가셨던, 밤마다 화장을 하시고 나갈 준비를 하시는 엄마의 옷깃을 잡으면서 "엄마 가지마. 나 말 잘 들을께"라고 울면서 어리광을 부리던 저에게는 지난 모든 일들이 소망 없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끔씩 집에 놀러 오던 미국 아저씨들을 보면서 그 아저씨들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가끔씩 외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엄마와 그 미국 아저씨 틈에 끼어 한 다정한 가족처럼 남들에게 보이고 싶었고, 어느 때는 돈이라는 종이 한 장에 이집저집 이사를 하면서 울던, 엄마에게 한없는 원망의 소리를 한 철없는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화를 내시는 엄마에게 "왜 나를 낳았어, 책임도 못 지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라고 말하여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정말로 없었던 말인데 엄마를 싫어한다고 외치던 적도 있었고 마음 아파하는 엄마에게 "나 미국에 보내줘, 아빠에게 갈거야"라고 외치면서 아빠의 사진을 보던 저에게 실망

하시던 엄마의 모습, 야단을 치시고는 뒤에서 혼자 우시는 엄마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쓰라림 고통의 모습이었는지 지금에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혼혈 아동들의 파티, 일명 ACA 혼혈아협회의 도움으로 알게 된 제시와 외국인 학교 친구들과의 만남,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에, 미국분들의 웃음에 내 세상에 온 느낌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동정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파티에서 아빠를 따라온 평범한 미국 아이들을 뒤에서 바라보았던 말못할 느낌, 그래도 혼혈아라고 아빠없이 엄마의 손에 자라 온 아이들이라고 서로 뭉치고, 같이 대화하며 정을 나누던 친구들, 그 때 그 시간만큼은 내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 아마도 그 느낌은 거의 모든 혼혈아들의 기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모든 것들이 나아지고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그때 그 일들이 많이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의 느낌, 처음 학교를 가던 날 아마도 그 때의 충격은 아직까지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이 된 기분 "야! 검둥아"일명 깜상이라고 저를 부르던 아이들 "너희 엄마는 양색시지" 오늘과 내일을 각각 다른 남자에게 안겨있는 엄마를 비웃던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릴 때의 추억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아니 모르는 사이에 저 자신이 그 환경에 적응되었지만, 그때의 그 일들은 그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때인가 저를 껌둥이, 깜상, 창녀의 딸이라고 비웃던 아이들이 저의 친구가 되었고 그 사이에 적응하면서 저는 저를 발견하고,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나온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앞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하나 둘씩 이 한국을 떠나고 미국으로 입양되어, 혹은 후원사를 통해 미국으로 가는 혼혈 아동들을 보면서 제가 서야 할 곳은 이 곳,한국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나의 뿌리가 있는 나라 미워하던 그 아빠의 고향, 인종의 차별이 한국처럼 심하지 않은 곳, 그곳은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할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또 다르게 생기는 변화, 그리고 친구들 어느 때는 저의 편에 어느 때는 남이 되어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결정이 정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간다고 잘사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한국에 산다고 못사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하는 곳, 조금이라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저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계신 엄마의 모습에 약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요. 미국에 가기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던 저에겐 우연과 행운이 함께 걸린 일들이 많았습니다. 혼혈아협회를 통해 알게 되었던 분이 저를 입양하기를 원하였고, 그 분과 미국으로 가는 수속을 하던 중에 알게 된 Karita수녀님을 통해 저에 대한 소식을 미국에 계신 증조할머니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남보다 아빠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수녀님의 권유에 저는 아빠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 많은 걱정과 불안함으로 밤을 지샌 적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옆에 두고 같은 한국땅에 다시 나와 살면서도 자기의 자식임을 부인하던 몇 분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잠겨 있던 저의 마음에는 아빠를 찾아 미국에 가는 것은 발안한 일 같았습니다. 하늘의 운명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감사의 삶을 많이 느끼지 못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일들은 무척 쉽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어 갔고, 저는 아빠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마음에 걸리던 것은 병환에 계신 엄마를 홀로 이곳에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갈 준비를 하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넌 너의 인생을 위해 엄마를 판거야. 미국이라는 나라도 한국과 같이 사람이 사는 곳이고 말을 하고, 먹고, 자고,생활하는 것은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태어나고 자라 온 나의 반쪽의 영혼과 역사가 묻혀 있는 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저의 마음을, 나에게 독종이라고 욕을 하시면서 우시던 엄마를 보며 미국을 가야 했던 저를 아무도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만 개방적이었다면, 외국인 2세에 대한 차별이 적었다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그것과 같은 것이었다면,저는 아마도 이곳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자신감이 없었던 것은 짧은 의식과 저에게 남아 있던 좋지 못한 감정과 일들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저는 지난날의 저의 판단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과 미국의 혼혈인으로서 홀로 서는 방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저는 저의 판단이 올바른 일이고 아직까지 한국에 남아서 지내는 혼혈인의 판단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는 생각하니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노는 눔이 있고 생각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자신의 노력과 행동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아빠를 만나고, 대학에 입학했다고 저의 생활이 이곳에서 살던 때보다 나아졌다고 해서 저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남아 있는 혼혈인들이 실패할 인생을 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아 온 세상 그리고 저의 짧은 의견으로는 지금의 한국은

아직 열린 세상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생활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은 저의 의견, 노력과 의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는 곳은 한국보다는 미국이라는, 더욱 열린 곳은 미국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님들은 어린 자식들에게 의지하시고 자식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소망되게 자식을 위해 살아가신다는 것을, 쓰라린 아픔을 속으로 감추면서 지내시는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상대와 행복한 삶을 개척할 꿈을 꾸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자식을 위해 서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저희 자식들보다도 마음에 고민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에게는 일명 독종이라는 말과 엄마를 뒤로 남긴 채 저만 살겠다고 아빠에게 간 못된 자식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저에게는 예전보다도 많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소망 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어떤 일들이라도 제가하는 일에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생활이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인종차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보다도 범죄가 많고, 개방적인 만큼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미국은 희망적입니다. 저의 친구들 중에는 마약 장사를 하는 친구도 있고, 법대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섞여 있지 않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거의 한번 정도는 연예인, 스타들을 좋아하고 그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결론으로 남는 것은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반, 동네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마저도 오직 자신을 위해 혼자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역시 제가 성공된 삶을 살거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미국에 가면 성공한다는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길에서 지금 보다는 나은 인생을 찾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엄마와 친구와 무든 어린 추억을 뒤로 한채 슬픔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자기가 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는 찾아갈 것입니다.

미국에서 운 적도 많았고 한국의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마음이 혼잡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 뒤에 누워있는 마른 몸매에 힘없이 계시는 엄마와 많은 시간을 앞으로도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아픔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단지 주인이 일어나서 그 문을 나를 위해 열어 줄 때까지 참을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짧습니다. 슬플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한 적도 있었고, 죽고 싶을 정도로 엄마가 보고 싶을 때도 있었고, 어두운 밤 하늘에 두손을 모아 엄마의 병환 완쾌를 위해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검둥이라는 소리, 깜상, 아빠 없는 애라는, 창녀의 딸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의 소리뿐입니다. 미국처럼 개방되지 않는 한국 사회 속에서 방황하는 혼혈 인의 모습이었던 때가 있었고, 미국에서 엄마 때문에 혼자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내일이라도 저에게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만은 저는 좀더 밝은 쪽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친오빠, 언니, 동생 같은 다른 혼혈아들에게 자신 있게 저를 소개할 수 있게, 제 자신을 바르게 키우고 싶습니다. 저도 겁이 나고 희망이 없고, 그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고, 호기심에 이것저것 하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언니 오빠 동생도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까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를 바르게 이끌어 주실 분들이 필요하니까요.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의 어머님, 그리고 주위에서 저를 위해, 저와 같은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기도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일없이 자란 것은 그분들의 덕택이니까요.

끝으로 저와 같은 혼혈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대에게 "앞으로 무엇을 할래?"라고 물어 본다면 결코 "몰라요."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로 희망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도 그것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한 분이 계셨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인지, 그리고 "몰라요."라는 말이 얼마나 절망적인 말인지도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사랑하세요. 저 역시 저의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한 적도 있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어머님의 기원 때문이니까요.

또 아빠를 미워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세요. 아빠를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그래도 아빠를 이해 못하고 미워한다면 그냥 미운 대로 열심히 인생을 사세요, 그가 버린 이 몸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 저는 아빠, 새엄마, 언니들 그리고 오빠와 살면서 많은 갈등이 있지만 또 영어와 다른 생활습관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그들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그리고 저를 발견 못하고 살아온 한국에서의 17년간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살 거예요.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울어도 그 누구에게도 웃음을 잊지 않은 저와,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서로 좋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꺾이지 않는 들꽃처럼.....

숭실대 '92 황 금 녀

94년 여름은 나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는 해였다. 기지촌 여성 절반 가량이 강간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 순결 이데올로기가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악요소라는 것, 미국이 이 땅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던 점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라도 내가 얼마나 유치한 인텔리 콤플렉스를 가진 사이비 여성 운동가였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기지촌 활동이었다.

지금껏 우리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기한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숭실대 기활의 모범을 창조 해야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며 호기심 반, 두려움 반, 동정심 반 등의 마음과 함께 각종의 교양 수업과 소요산 등반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 학교에 배정된 의정부 두레방에 들어갔다. 처음엔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였지만 역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두레방 실무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기술 덕분에 많은 어려움은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혼혈아 아동들은 내 눈에는 영락없는 외국인이었다. 잘 삐치고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던 메리, 그나마 의젓하고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려 하던 송. 지금은 또다른 고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유난히 똑똑하고 말도 잘 듣던 필우는 장구를 배우는데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의정부의 명물 호영이. 코미디언 아닌 코미디언으로 뭇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던 아이였다. 하지만 정신병자의 어머니를 둔 명철이, 도망간 엄마를 둔 한솔이. 이네들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보듬어 주고 이들이 건강한 한국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 줌의 옥토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 든다.

언니들 역시 그렇다.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끼나마 우리와 함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진한 사람 냄새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정신적 영양 보충을 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마지막 날의 클럽 방문은 더러운 양키 문화의 침식과 제국주의의 성침탈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 여성을 팔려고 안달 부리는 펨푸들, 한국

여성을 사려고 안달 부리는 미군 놈들, 벌레 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도 정권 유지와 돈 벌기에 급급한 권력가들의 희생양 윤금이 누이의 흔적은 우리들 가슴에 또 한번 식민지 조국 청년들의 가슴에 꺼질 줄 모르는 분노를 타오르게 했다.

기지촌 활동은 단순한 봉사 활동이 아니다. 노예로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이 사회에 굴레의 사슬을 끊고 반미는 곧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어야 하며 이는 기지촌의 상처는 나의 상처라는 인식의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기지촌 활동은 봉사 활동이 아닌 상호 변화의 활동이며 제국주의에, 자본주의에, 순결 이데올로기에 강간당하는 이 땅 여성 모두의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지촌 활동이 없어지는 그날, 통일 조국이 건설되는 그날까지 꺾이지 않는 들꽃처럼 살 것을 다짐한다.

나와 다르지 않은 우리의 이웃

서강대 '92 장 승 준

내가 기지촌 활동을 떠났던 것은 93년의 무더운 여름이었다. 농활가기전 기지촌 활동 대자보가 유독히 내 가슴에 다가왔고 매춘 여성들에 대한 또한 미국에 대한 평소의 관심이 나를 농활 이후 기지촌 활동으로 안내하게 되었다.

기활 준비 과정으로 토론도 하고 기활 학교에서 교양도 받으면서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안보라는 이름 하에 가려진 미군 범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사고의 폭도 넓어지게 되었다. 매매춘 여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왜 매매춘은 생겨났고 유지되는지 등에 대해 대학생들도 여러 토론의 장에서 많은 얘기를 주고 받지만 결국은 나와는 다른 삶으로 인식의 정도에 그쳐 버리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찾아간 동두천이란 곳은 매우 낯선 이국적인 곳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흑인 미군을 흔히 볼 수 있었고 즐비하게 늘려 있는 상가에서는 영어로 쓰여진 색색의 옷들이 진열되 있었다. 미2사단 정문에는 유모차를 끄는 미국 여인들과 나고 들어가는 한국 여인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93년 여름은 92년 10월 윤금이씨가 살해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찾아갔던 다비타의 집 목사님은 윤금이씨 살해 공동대책 위원회의 일로 활동하시던 때였다. 목사님께서는 윤금이씨가 살해되었을 때 그 후 그곳에 가셔서 목격했던 상황을 얘기해 주셨으며, 유치원에서 흑인애와 백인애의 사소한 싸움이 부모님들 사이의 흑백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말씀. 저녁이면 싸움으로 유리창이 부서지는 일들이 빈번히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지역 설명이 찾아간 기활 대원들을 잔뜩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엄마는 밤에 일나가시고 안 계시는 집에는 장난감이 많았지만 밤이면 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내가슴을 무척 아프게 했다. 놀이방 활동에서 애들과 지내며 느낀 점은 혼혈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섞여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어우러진 속에서 애정을 목말라 하여 선생님인 학생들을 따를 때 이곳 아이들도 여느 애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다.

군대 생활을 해 본 나이지만 미군 기지를 기지 안 버스를 타고 돌아 다녀야 할 만큼 그렇게 넓다는 것을 예전에 생각 못한 바다. 짧게 돈다고 돌았는에도 한40분 걸렸

다. 한국군 기지와 다른 점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기지 안에 군인 아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고 잘 정리된 산소가 있었으며 PX도 서울에 한 caffee를 옮겨 놓은 것 같았다버스에서 본 'warrior club' 도 인상 깊게 남아 있다. 윤금이씨를 죽인 케네스 마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안내를 해주러 왔던 캬츄샤와 함께 온 미군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놈은 극형까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말에 미군도 자기들의 범죄에 대해 증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미 감정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반미 감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너희들과 친해지고 싶다."고 엉뚱하게 대답하였다.

클럽 방문도 인상깊게 남아 있다. 흑인 전용 클럽에 먼저 들어 갔다가 "내국인 출입금지" 였으므로 (단,여자들은 출입이 허용된다.) 기활대원중에 남학생이 셋이었는데 전부 그곳을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에 갔던 곳이 목사님이 아시는 작은 클럽이었는데 클럽 안에 태극기가 크게 붙어 있었던 게 인상깊고 꽃파는 아주머니들이 아무말 없이 탁자에 꽃을 얹혀 놓고 사지 않으니까 말없이 나가시곤 했다. 용기를 내어 클럽 bar에 있는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클럽의 종업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영어도 배울 겸 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대화의 상대를 잘못 선택했다 싶었다. 클럽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는 것이 또한 의아하게 생각되었다. 내가 미군 범죄 근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했더니 "주위를 보라 어느 미군이 사고 치느냐?" 하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뜨끔 움찔했다. 클럽을 나오며 역시 미군 범죄는 조직적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준비 과정에서 기지촌에 대해 많은 절망을 느꼈었다. 그러나 나중에 놀이방일정, 클럽 방문, 기지 방문에 임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편견과 질시, 무관심 속에 방치된 기지촌에서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차근 차근 변화를 모색해 나가려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지역 두레방 간사님들의 끈기와 지치지 않는 모습에서 였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각, 세상의 시각이 변해야만 살아 갈 수 있고 매춘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서는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없는 기지촌에서 매춘 여성들이 이 사회의 구조적 피해자라는 것을 일깨우고 기지촌의 변화를 모색하는 분들의 노력은 커다란 교훈이 되었다. 또한 기지촌 여성들도 나와 다르지 않고 나와 무관하지 않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도...

기지촌 활동을 하기 위해 보아야 할 몇가지 것들

가슴 뭉하고 '눈물 찍 콧물 찍'한 이야기, 우리가 짊어져야할 오욕의 역사..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2

--낮은 목소리--

제작;보임 감독;변 영주

서울의 구석진 곳, '나눔의 집'에 빗물이 떨어진다. 그 곳에는 6명의 정신대 할먼니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 집안 곳곳에서 떨어지는 이 비로부터 영화는 시작된다.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온 몸이 너무 아파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며 차라리 자살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박두리
할머니, 자신은 갈매기가 되어 훨훨 날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신다는 김순덕 할머니...

화면은 중국 호북성의 무한이라는 곳에 2차 세계 대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일본 패망 이후 한국으로 귀향하지 못한 할머니들 3명의 증언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그런 생활이 너무나 부끄러워 고향에 가지 못한 채 병든 몸으로 아이가 있는 중국인과 결혼하여 그 아이들을 키우며 지금까지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하군자 할머니, 일본군이 어린 나이에 끌려간 자신의 성기를 크게 하겠다며 칼로 잘라 버렸다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홍강림 할머니...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고향생각 엄마생각이 날 때마다 부르시는 옛 가요가 가슴을 친다.

매주 수요일.

이 날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차원의 수요 집회가 있는 날이다. 이 집회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신대 할머니들이시다. 겨우 10여명이 모인 집회지만 한번도 거르지 않고 아픈 몸을 이끌고 참여하는 모습에 눈이 시리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 의연히 일어나 50년동안의 억압에 항거하기로 결의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그놈들이 또 언제 우리 딸들을 우리처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지. 우리는 어차피 다 산 목숨들이니까 말이지."

95년 9기 서여대협 산하 4기 기지촌 활동 전체 일정

6월 네쨋주 -8월 첫째주 : 다비타의 집 (동부지구 + 지역학교)
7월 첫째주 -8월 둘째주 : 두레방 (서부지구 + 남부지구 + 북부지구)
8월 둘째주 주말 : 95년 기활 정리 모꼬지

기지촌 활동 학교

1차 기지촌 활동학교
언제 : 6월 24일 이른10시
어디서 : 해방광운대
*참가비:3,000원 (식사,자료집,수강증 제공)

2차 기지촌 활동학교
언제 : 7월 19일 이른 10시
어디서 : 청년서강대

하루 기지촌 활동

언제 : 7월 20일
어디서 : 대에서 집합 (차대절)
신청 : 7월 첫주까지 각 학교 총여 (명단 파악)

한미행협 즉각 개정을 위한 금요 집회

언제 : 7월 7일 , 21일 늦은 2시
어디서 : 서울역 광장
무엇을 : 서명전, P sale ,거리선전전 , 부대앞 시위

두레방 자선 공연

언제 : 7월 1일 늦은 5시
어디서 : 고대 인촌 기념관
*참가비: 티켓 7,000원